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지역주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4개 지역 11개 학교를 통합하여 4개의 거점 기숙형중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 **설립예정학교명(가칭)**

- 밀양 미리벌중학교(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 고성 공룡중학교(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 하동 한다사중학교(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 거창 덕유산중학교(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학교규모 : 7학급(150명)**

○ **사업비 : 85,731,591천원**

○ **개교예정일 : 2015.3월**

※ 사업추진에 따라 지역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적정규모학교로 지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1 학교 개축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전액
- 2 학생 기숙사비 전액
- 3 적정규모학교 지원금(별도)

구분	학교폐지						분교장 개편
	초등학교			중학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시지역	기타 지역	분교	시지역	기타 지역	분교		
종전	60억	20억	10억	60억	20억	10억	1억
현재	60억	30억	10억	100억	100억	10억	1억

※ 적정규모학교 지원금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 방과 후 학교 교육비, 기숙사운영비, 노후시설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농산어촌을 떠나는 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 지역처럼 좋은 학습 여건과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곳만이 아닙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또래문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의 좋은 학습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에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적정규모학교가 육성되면 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TEL : (055)278-1702~4 FAX : (055)278-1705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농산어촌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육성’으로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농산어촌 지역에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적정규모학교란

적정규모
학교란?

일시적 교육과정의 정상운동을 위한
통폐합이 아닌 영구적으로 존속·유지
될 수 있는 형태의 학교로서 초등학교
의 경우 복식수업, 중·고등학교의 경
우 비전공교사, 순회교사가 운영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 추진목적

복식수업해소(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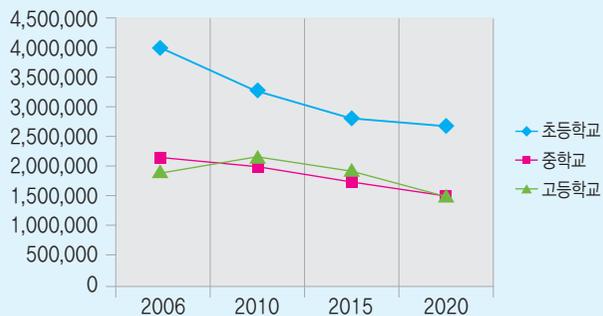
복수전공 및 상치교사해소
(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격차
해소

적정규모 학생수 확보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생수 변동 추이(전국)



2010년 대비
2020년 학생수
증감

초등학교 : △645,281명(19.8%) 감소
중 학교 : △600,406명(30.6%) 감소
고등학교 : △697,232명(33.6%) 감소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 부족으로 학습동기 저하 및
또래집단 형성 등이 곤란하여 진취성 및 사회성,
협동의식 배양, 올바른 인성 함양이 어렵습니다.

적정규모학교

학생수의 적정화로 또래문화 형성을 통해 선의
의 경쟁과 협조로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육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보다 체계적이고 좋은 환경에
서 교육받음으로써 학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②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교의 소규모화로 합창, 구기종목, 다양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적정규모학교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비를 전액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없는
학교, 학부모 부담경비가 없는 학교로 운영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이런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③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학교의 경우 교
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 교육환경이 갈수
록 나빠집니다.

적정규모학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
설로 개축이나 신축을 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에
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폐교된 학교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④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복식수업(2개 학년
이 한 교실에서 수업), 중·고등학교의 경우 비전공
교과목 수업 등으로 체계적인 학생지도 및 정상
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교사들은 복식수업 및 비전공 교과 부담이 해소
됨으로써 심리적·물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